

동원건설산업 성수동 오피스 코너360 신축 현장

더욱 세심하고 더욱 완벽하게 집중하며 무재해를 향해



쉬이 풀리지 않는 경기에 건설업계의 고전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건설·주택 경기전망'에 따르면 “2025년 국내 건설경기는 수주·착공 감소 등 선행지표 부진이 이어지면서 연간 건설투자가 약 9%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업체들은 불황의 늪을 벗어나려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데, 시공 능력과 안전보건경영 수준을 선보일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현장들이 그 단초가 되는듯하다.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동원건설산업의 신축 현장도 그 중 하나다. 삼각형의 현장 구조, 좁은 도로폭, 주택과 상가 인접이라는 난관을 이겨내며 안전한 현장, 건강한 현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달리고 있는 동원건설산업 성수동 오피스 코너360 신축 현장을 찾았다.

2026년에도 중대재해제로 이어갈 것

동원건설산업은 항만,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물론, 업무시설, 교육시설, 공동주택, 오피스텔, 병원, 호텔, 물류·냉동창고,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조성, 골프장 건설 등 다양한 사업부문에서 전문 노하우를 발휘하고 있는 종합건설 기업이다.

사업기획 단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운영단계 등 전 과정에 대한 차별화된 원스톱 서비스로 노후건물 수선이나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을 위한 리모델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의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동원건설산업이 2026년을 열며 또 한 번의 성장을 다짐 중이다. 특히 안전보건경영에 관한 공격적 투자와 실행으로 올해도 중대재해제로 이어갈 것으로 보여 기대를 높이고 있다.

동원건설산업이 시공 중인 성수동 오피스 코너360 현장도 중대재해제로 완공을 향해 달리는 중이다. 지하 6층 ~ 지상 10층 규모의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건물로 대지면적 2,247㎡, 건축면적 1,345㎡이며, 현재 일일출역 100여 명이다. 지난 2024년 9월 착공, 2025년 11월 말 토목공사가 마무리되고, 2025년 12월 말 현재 공정률은 30%로 2027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들도 함께 안전한 현장

동원건설산업 성수동 오피스 코너360 현장이 위치한 성수동은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초·중학교가 접해 있으며, 주변은 주택가와 브랜드 팝업스토어 등이 혼재되어 거주민과 관광객이 늘 가득한 지역이다. 대형 장비 진출입이 쉽지 않고, 현장 내 여유부지도 부족해 장비·자재의 반출입 계획과 공정 계획이 완벽하게 물려들어야 하는 현장이다.



특히 도심지 공사 특성상 민원 우려가 매우 높아 공사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현장 내 안전보건관리는 물론 주민 대상의 안전보건환경 관리가 선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등교시간인 오전 8~9시에는 공사 차량을 전면통제하고, 직원들이 통학도우미로 나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돕고 있다. 또 모범교통신호수를 채용하여 주변 교통 통제와 주민들의 통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분진 발생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광역 살수기를 구입하여 비치, 운영 중이다. 광역살수기는 일반적으로 채굴이나 제조 현장에서 분진 억제용으로 사용하는데, 미세한 물입자를 넓게 분사시켜 분진을 낙하시킨다. 분진 제거 및 냄새 제거, 온도 저감 기능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한다.

안상욱 소장은 “작지만 다양한 노력들이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주었으며, 공사 진행을 원활하게 이어주어 토목공사를 예정보다 2개월 빠르게 단축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동원건설산업 성수동 오피스 코너360 신축 현장 안상욱 소장



사고성 사망재해 제로 목표

동원건설산업 안전보건경영목표는 사고성 사망재해 제로, 관리한계 재해율 0.0%다. 파악되지 못한 재해가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관리 현장을 목표로 하겠다는 엄중한 선언이다. 이에 맞춰 성수동 오피스 코너360 신축 현장 또한 동일하게 ‘사고성 사망재해 제로’를 현장 안전보건 경영 방침으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위험성평가 내실화를 위한 활동들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현장 활동 평가 점검 및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위험 요인 집중 관리를 위해 반복 부적합 요인 밀착 관리, 골조공사 선제적 안전확보 및 패트롤 강화, 외국인 근로자의 시각중심 교육 콘텐츠 운영, 맞춤형 선제적 안전교육 및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안전일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작업 전 5초만 안전 확인 캠페인’을 운영하고, 휴먼에러 유발 근로자에 대한 수시 교육 강화, 시청각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강화, 오전·오후 TBM 시 일일 5분 브리핑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과 시공을 잡는 스마트 기술

동원건설산업은 최근 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해 미국 식품공장의 구조안전진단과 보강 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 눈길을 끈 바 있다. 특히 비접촉 방식으로 데이터를 확보해 접근이 어려운 구간까지 측정했고, 짧은 시간에도 넓은 범위를 안전하게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고소 작업이 크게 줄어 작업자의 안전성을 향상시켰고, 기존의 수기 측량 방식 대비 조사 효율성도 크게 개선됐다고 한다.

또한 동원 여러 현장에서 BIM(건설정보모델링)과 3D스캐닝,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한 현장 순찰 시스템, 스마트 경보장치를 활용한 안전관리체계를 운영, 실효성을 입증하였다.

이에 동원건설산업은 현장 상황에 맞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선택·적용하고, 활용 폭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본사 스마트건설 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 맞춤형 매뉴얼을 정비해 현장과 본사가 동일한 기준으로 데이터를 공유·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표준화 기반을 구축 중이다.

조성진 동원건설산업 대표는 언론을 통해 “현장의 필요에 답



하는 기술개발'이라는 원칙 아래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해 현장의 안전성과 시공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AI로 관리되는 현장 안전

이러한 스마트 설비를 투입한 현장 안전보건관리는 이곳 성수동 오피스 코너360 신축 현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동원건설산업 전현장에 도입 중인 '스마트 통합관제실' 설치 가 그 중 하나. 스마트폰 비콘을 통한 근로자들의 출퇴근 현장과 위치 확인을 기본으로, 각종 센서를 활용한 유독가스 탐지, 가설구조물 계측 위험 확인 등 현장 내 변화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즉각 응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현장에 장비 구축 중으로 카메라 50여 대를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Chat GPT 등 AI를 활용하여 현장의 안전수칙 위반이나 시설물 보원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동원건설산업 김정철 안전부장은 "카메라를 통해 현장을 인식한 인공지능이 난간대가 추가로 필요한 지점을 확인하여 추가 설치 요청을 한다거나, 근로자가 사다리 위에서 단독 작업을 할 경우, 이를 확인하도록 알람을 하는 등 통합관제센터에서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푸시하게 된다."고 전한다.

진정한 안전보건경영 기업으로

동원건설산업은 국제 품질 규격인 ISO9001, ISO14001, ISO45001 인증 획득은 물론 과감한 기술투자와 충분한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해 정상급 종합건설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임직원 건강 증진, 환경 보전 기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행하고 있는데, 특히 최우선 경영과제로 안전을 지목하고 매분기 HS(Health Safety) 경영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 안전문화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한 불시점검과 안전평가, 임직원들의 주말 안전점검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의 안전보건의 날을 운영하며 안전보건환경 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구축으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이는 일터에서의 안전보건을 넘어 가족의 안전과 건강까지 챙기는 진정한 안전보건경영 기업으로의 발돋움이 아닐까 싶다.

관심과 실천이 만드는 안전 현장

동원건설산업의 경영 방침들은 안상욱 소장의 현장 경영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데, 평소 '정성을 다하자'는 운영 철학 덕이다. 이는 공정 진행이나 현장 관리에 있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약간의 노력을 더하는 '정성'이 있다면 훨씬 안전하고 건강한 성수동 1등 현장을 만들 수 있다는 안 소장의 믿음에서 기인한다.

최근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발판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법적 기준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아닌, 직원들의 어린 자녀들이 다녀도 안전할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근로자 휴게실 모니터에 자연 경관을 상영한다든가 하는 것이다. 휴게실 모니터는 일반적으로 현장 안전수칙이나 계절별 안전 상식 등을 알려주며 일종의 교육용 도구로 활용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곳 현장의 경우, 감성안전을 중시하며 휴게실은 오로지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되기 바라며 산이나 강, 바다 등 다양한 풍경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채워진다. 정신없고 바쁜 하루의 틈, 근로자들이 잠시라도 마음의 휴식을 갖길 바라기 때문이다.

결국 '정성'이란, 약간의 관심을 더해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

게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조금 더 좋은 품질을 위한 모든 노력들을 의미한다.

현재 동원건설산업 성수동 오피스코너360 신축 현장의 공정률은 30프로로 지상층 골조 공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 그렇게 출역인원이 늘어나고 공정이 복잡해지면 재해 위험도 높아질 것이고, 현장 위치상 갖는 대외적 난관들도 예상된다. 하지만 갖고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역량 높은 관리자들의 '정성'과 최신 기술들의 '스마트함'이 더해진다면 최대의 효율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성수동에서 제일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현장이 되고자하는 동원건설산업 성수동 오피스 코너360 신축 현장의 중대재해제로 완공을 기원드린다. 

박민선 기자(bakija0006@naver.com)

